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93

# 김원일의 『바람과 강』에 드러난 정념 기억과 주체 의식 연구

마 혜 정*

##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김원일의 『바람과 강』에 나타난 정념 기억과 주체의식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다. 『바람과 강』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변절자'가 된 사건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우리 소설사에서 자기 징벌의 문제를 가장 깊게 다룬 장편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는 그러한 징벌의 방식과 의미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 개인의 과거에서 기억과 정념(passion)이 하나의 불가분한 복합체로 작용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자전적 기억의 서술에서 정념은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념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촉발하는 기억을 정념 기억이라 칭하고 주인공 이인태가 기이한 양극적 행위를 보이는 것을 정념 기억에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그가 가진 정념의 근원은 독립군 시절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변절의 행위로 인해 여러 조선인이 죽으면서 생성된 것으로 그 안에는 두려움과 고통의 정념을 비롯해 죄의식과 자기혐오, 자기 구원의 욕망 등을 포함한다. 본문에서는 먼저 자기혐오의 정념이 주문(呪文)에 복속(服屬)되는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복속의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해보려는 욕망에서 종교적 귀의(歸依)나 묘터 찾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판소리를 계기로 자기 고해를 이루면서 동시에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인간적 연민(compassion)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기 정화에 이르는 과정을 논의한다. 이로써 작가가 『바람과 강』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반성과 실천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의 분투를 행하는 변절자의 삶과 그 문학적 말로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김원일, 『바람과 강』, 정념, 정념 기억, 자기혐오, 죄의식, 자기 구원, 연민, 변절자

목차

1. 서론
2. 정념 기억의 각인과 주체의 의식 변화
  1) 주문(呪文)에 대한 복속과 정념 기억의 발현, 자기혐오
  2) 죽음을 통한 탈주와 자기 구원의 욕망
  3) 공동체적 연민의 회복과 자기 정화
3. 결론

# 1. 서론

김원일의 작품을 기억 담론으로 읽을 수 있다면 분단을 다룬 소설들이 한결같이 서사적 현재를 조직하고 규정하는 과거 기억을 문제 삼고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노을』(1977)은 이중적 차원에서, 곧 현재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기억을 중심으로 심층의 기억을 가리는 방식을 차용함으로써 지배 권력이 타자화한 기억, 곧 '비공식적 반기억'[1]의 형상인 월북자 아버

1)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186면. 패자와 억압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비공식적 반기억은 공적 기억에 의해 비판적으로 전복된 기능기억으로 억압적이라고 여겨진 권력 구도의 정통성 소멸을 모티프로 한다. 정통성과 권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공적 기억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권력의 소멸 이후 선택되고 보존되는 기억은 미래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인다. 비슷

지의 기억을 소설화하는 데 이른다. 그의 후기작이라 할 수 있는 『손풍금』(2002)에서도 노인이 회상 행위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자신과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원일이 일련의 작업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운위하는 무엇에 관한 일인 것이다. 1985년 작인 『바람과 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기억을 문제시한 작품들이 분단이라는 사건을 배면에 두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바람과 강』[2]은 주인공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으로 활동하다 '변절자'가 된 사건의 기억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의 잔영을 현재의 삶으로써 완성하려는 의지에 있다. 후기(「한 편의 소설을 쓰고 나서」)에서 작가 역시 언급하듯 "과거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삶을 현재의 삶 속에다 어떻게 맺느냐가 문제인 것이다."[3] 작가는 이를 통해 '변절자'의 기억을 가진 현재적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준엄하게 질문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형상을 그려내어 답함으로써 '변절과 반성의 문제를 우리 소설에서 가장 깊이 다룬 장편'[4]이라는 평을 받기에 이른다. 『바람과 강』은 이처럼 '한국인의 정신적 외상의 뿌리를 차라리 일본 식민 시대에서 찾고 있다'[5]는 점에서 역사적이자 고뇌하며 반성하는 특별한 삶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개별적임과 동시

---

한 의미로 푸코의 '대항기억(Counter Memory)'이 있다.

2) 김원일, 『바람과 강』, 문학과지성사, 1985. 이하 부분 인용은 뒤에 면수만 표기하며 본고 지문의 " "로 묶은 짧은 인용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3) 김원일, 위의 책, 254면.

4) 정호웅, 「한국 역사소설과 성장의 행로」, 『현대소설연구』1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327면 각주19.

5) 김현, 「달관의 역사적 의미」(해설), 김원일, 위의 책, 276면.

에 근원적인 삶의 모순에 접근함으로써 존재론적 탐색까지 시도하고 있는 문제작이라 할 수 있겠다.[6]

그러나 『바람과 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평론 외 본격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김원일의 소설 연구의 경향이 분단과 역사소설에 치우쳐 있기 때문으로 이는 『바람과 강』의 소설적 성격이 그에 수렴되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대영[7]은 제목의 '바람'과 '강'이 의미하는 바가 소멸과 생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스토리시간과 서사시간이 불일치한 서사구조를 정리한 뒤 속죄하되 역사와의 화해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지만 작품에서 가장 주요한 주인공의 심리적 변이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층적 차원의 해석에 그쳐 보인다. 반면 최근 이미나[8]의 연구는 평자들의 해석을 이어받아 주인공 이인태의 죄의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인태의 심리 상태에서 처음 '자기 처벌자'의 특성을 발견하고 있는 정호웅[9]의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는 글로 '변절자'라는 죄의식이 수치와 죄책감의 감정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수치스러운 성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강한 타나토스의 표출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한다. 또한 판소리 자체가 갖는 예술성을 적용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작가의식을 유추해낸다. 감정의 개념에 천착함으로써 『바람과 강』을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방향성을 추수하는 데 뜻깊은 글이기는 하나 이론에 치중한 과도한 해석 등은 재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령 서사 말미 소리판

6) 서정기, 「역사의 신화적 열림」, 『작가세계』9, 작가세계사, 99-100면.
7) 이대영, 「김원일 장편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43, 한국언어문학회, 1999, 431-452면.
8) 이미나, 「『바람과 강』에 나타난 '죄'의 감정과 죽음의식 연구」, 『구보학보』15, 구보학회, 2017, 290-319면.
9) 정호웅, 「한국 소설 속의 자기처벌자」, 『구보학보』7, 구보학회, 2011, 198면.

의 의미에 대해 살필 때 정작 서사 자체에서는 소리를 들으며 과거 기억을 환기하다가 졸도하는 정도로 서술되는 장면에 대해 이를 '청각 중심의 예술인 판소리는 신체를 통한 인간의 의식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고도의 효과를 지닌 예술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은 서사를 넘어선 과도한 설명으로 여겨진다. 대체적으로 정호웅과 이미나의 글은 결과적인 감정의 표출 상태에만 주목함으로써 감정 변이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주인공 이인태의 기억과 감정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주체의 의식 변화 양상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곳에서 정동의 개념을 활용해 『바람과 강』을 더 깊게 읽어내고자 한다.

기억과 감정(정념[10])의 문제는 주지하듯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베르그손은 『물질과 기억』에서 정념을 '외적 물체들의 이미지에 우리 신체의 내적인 것을 혼합한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세계 표상인 이미지들 앞에 있음을 전제한 그가 보기에 신체의 존재 방식은 매우 특권적이다. 다른 이미지들은 전체 속에서 운동을 받고 되돌려 보내는 작용으로 전체 속에 존재하는 반면 인간의 신체는 투사되는 외적인 것을 그대로 반사함으로써 물질을

10) 정념의 의미는 흄의 『인성론』을 연구하고 있는 양선이의 글에서 참고했다. 흄은 『인성론』 2권에서 감각인상과 반성인상을 구분해 설명한다. 그는 감각을 거친 지각 이후에도 마음에 남아있는 모사를 관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쾌락과 고통에 관한 관념이 영혼으로 향했을 때 그 관념은 욕망과 혐오, 희망과 공포라는 새로운 인상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의 인상이 반성인상으로, 반성인상은 다시 기억과 상상에 의해 모사되어서 관념이 되고 이는 다시 다른 인상과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반성인상은 일상적으로 차분하거나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며 정념들과 그들과 유사한 나머지 감정들이 곧 반성인상에 속한다.(양선이, 「흄에 있어서 정념과 자아」, 『철학연구』55, 철학연구회, 2001, 124-7면) 다시 말해, 감각인상이 감각됨으로써 갖는 쾌락과 고통을 의미하는 개념인 반면 반성인상, 곧 정념은 감각된 이후 그 감각을 바탕으로 발전된 단계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감정 대신 정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안에 혐오와 욕망, 죄책감(죄의식), 연민, 두려움 등을 포함시킨다.

지각하는 한편 거기에 투쟁하며 어떤 것을 흡수함으로써 정념을 생성하기도 하는 것이다.[11] 이 같은 지각과 정념은 밖으로부터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인식되는 의식 존재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미지의 순수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각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추출해 내야 하는 것이 곧 정념이다. 지각된 이미지들을 보존한 것이 기억임을 짚고 본다면 정념이란 이처럼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지하는 심리기제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이가 바로 문화적 기억의 다양한 형식과 변천을 정리하고 있는 알라이다 아스만이다.

정념에 대한 베르그손의 부정적 정의가 한편으로는 기억과 정념의 불가분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듯이 알라이다는 이를 기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본다. 그는 기억의 매체로 문자나 그림, 장소 외에도 인간의 몸을 들고, 특히 몸에 새겨진 고통을 언어와 함께 기억의 안정장치로 분류한다.[12] 언어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지만 이 경우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 사건이 아니라 언어화한 사건이 되는 탓에 고정적이면서도 그 기억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반면, 몸에 기록된 고통이란 관념화되지 않은 그것 그대로 한 개인의 삶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억의 매체로 작동한다. 한 개인의 과거에서 기억과 정념은 하나의 불가분한 복합체로써 특히 자전적 기억의 서술에서 정념은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라 진정성의 영역에 속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정념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촉발하는 기억을 정념 기억이라 칭하고 『바람과 강』에 나타난 정념 기억의 양상과 그에 동반되는 주체의 의식 변화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

11) 앙리 베르그손, 박종원 역, 『물질과 기억』, 아카넷, 2014, 101-4면.
12) 기억과 정념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37-46면 참고.

다. 이로써 작가가 『바람과 강』을 통해 보이고자 했던 반성과 실천의 분투를 행하는 변절자의 삶과 그 문학적 말로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2. 정념 기억의 각인과 주체의 의식 변화

### 1) 주문(呪文)에 대한 복속과 정념 기억의 발현, 자기혐오

『바람과 강』은 전체 8장으로, 해방이 되던 해 입암 장터 주막인 월포옥에 홀연히 나타나 월포댁의 기둥서방으로 눌러앉아 현재(1953년)에 이르고 있는 이인태가 신장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최지관과 함께 묘터를 물색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가 왜 그토록 좋은 묘터 찾기에 안달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 과거의 행태를 드러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3] 서사 말미에 드러나는 그의 과거 행태란 언급했듯이 독립군이던 당시 저지른 변절의 과오를 말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서사 전반에 걸쳐 외모나 행동 묘사를 통해 먼저 그의 기이한 양극성을 제시함으로써 한 점의 과오가 그 인간의 생애에 걸쳐 끼치는 지속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영향에 대해 암시하고자 한다.

묘사된 바에 따르면 그의 외모는 "괴짜스러운 위엄"을 풍기면서도 "한편 우스꽝스럽게" 보인다.[14] 하룻밤 새에 "월포댁 안방 차지"를

13) 그 외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최지관의 가족과 그들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는 주막집 허드레꾼 명구의 이야기가 간간이 삽입되어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하의 시간들을 불러들이는 이인태의 서사와 놓고 보면 현재를 생성한 과거와 현재를 거쳐 완성될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선형의 시간과 그것들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14) "정수리까지 벗겨"지기는 했으나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로 머리칼을 길게 길렀고

하고 들어앉은 솜씨에서 유추되어 장터거리 사람들로부터 “이대말(‘큰 말좆이란 상스러운 별명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여 끝자를 생략한 별칭’)”이라 불리는 한편 화투노름에 대단한 실력을 가진 걸 한번 선보인 적도 있으나 “속임수”를 배우러 온 거간꾼을 점잖게 물리쳐 “다른 면의 인품”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의 유일한 벗인 최지관이나 “월포옥 죽놈이” 명구의 시선에서도 그의 양극성은 도드라져 보인다. 그의 “눈웃음”에는 “색기”가 있으나 “그의 말”에서는 “달관”이 느껴지며 “명구가 보아도 어묵같이 유들유들한 얼굴에 징그러운 시선으로, 거기다 묘한 웃음까지 띠면 양쪽 뺨이 꼭 아기의 볼기짝이나 잘 익은 봉숭아 같아”(131면) 보인다. 특히 최지관의 시선을 빌린 서술자의 다음 지문은 이인태가 어떤 유의 인물인지 그 특성을 잘 요약해 보여준다.

> 바람에 날리고 있는 머리칼 사이 이인태씨의 무심한 옆얼굴에는 달관한 자의 그 어떤 심오함이 깃들어 있었다. (중략) 경거망동으로 깝죽거리며 편박스러운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은근하며 과묵한 구석이 있고 계산과 이치에 밝으며 탐욕스러운가 하면 물욕을 초월한 초연함이 있었다. 하는 행동이 똥개같이 천박하여 상종 못 할 저속함을 보이다가도 홀연히 허장성세 군자다운 위품을 세우는 그였다.(117면)

고결과 저속의 극단을 오가는 이 같은 기이한 인물됨에서 유추되는 것은 그가 고아한 인격을 지녔으되 무언지 모를 근원의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자신도 제어 못 할 경박하고 저속한 언행을 반복하고

---

옆머리칼은 귀를” 가려 “예수”나 “수도하는 도사”로 보이고 “뭉텅하게 솟은 코와 몽롱한 눈동자와 어울려 어찌 보면 괴짜스러운 위엄을 풍겼지만, 한편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였다”(12면) 서정기는 이러한 외모가 남근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그의 얼굴이 “말대가리”같이 길쭉하게 생겼다는 점이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사실에서도 성적 인간의 상징을 읽어내고 있다.(서정기, 앞의 글, 109면)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주변인들로부터 멸시받기를 자처하듯 스스로를 "수캐"나 "미친 짐승"으로 칭하고 "욕정을 주체 못 하는 한 마리 숫짐승을 방불케"하는 "비시기 웃는 웃음을 입가에" 띠는 모양새는 자기 폐기[15]에 이른 듯한 느낌마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최지관조차 그라는 "인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른다. 주변인의 경외감을 사는 동시에 모멸감을 꺼리지 않으며 현 시점의 삶에 아무런 의욕을 보이지 않는 초연에서 오는 이 같은 기이함은 이인태의 불분명한 내력과 함께 그가 스스로 얽매인 불안과 고통의 정념들을 담지한 자임을 드러내려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그의 현재를 옥죄는 정념의 근원이란 후에 밝혀지듯 과거 독립군 시절의 변절행위에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태를 정념 기억에 붙들린, 정념 기억의 발현태라고 할 수 있다.[16] 그렇다면 특히 그 정념의 내밀한 성질과 함께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인태가 그러한, "철저하게, 생물로서의 수컷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실상 두 번의 고백에 의해 밝혀진다. 첫 번째 고백은 최지관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밝힌 것으로 당시의 지독한 고문 끝에 두 귀를 잃고 실성한 뒤부터 "난 그냥 한 마리 개 돼지나 들풀맨쿠로 살기로 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15) 제6장에 가면 최지관도 이처럼 말한다.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운 이인태에게 최지관은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옹고집과 허장성세의 자존심이 있게 마련이라 자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네는 그 힘든 일을 해냈어. 장하네."(176면)

16) 문예학자 랑거는 아우슈비츠의 기억 구술 현장에서 구술자들이 생성하는 다양한 기억들을 연구하면서 이 같은 경우를 비영웅적 기억으로 분류한 바 있다. 영웅적 기억이 자기 존중이나 자유의지, 정신적 선택, 미래에의 기대, 긍정적 가치관 혹은 구원의 수사학 등을 갖추고 있는 온전한 자아를 전제로 하는 반면, 비영웅적 기억은 이 같은 모든 정신적 자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며 손상된 자아가 뒤따른다. 이인태의 삶은 비영웅적 기억에 포박된 손상된 삶이다.(Lawrence L. Langer, *Holocaust Testimonies-The ruins of Memory*, Yale University Press, 1991, 170-1면. 관련 설명은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50-1면 참고)

변화라고 설명한다. 특히 “혼은 말짱 빼내버리고 몸뚱이만으로 목숨 끊길 날까지 굴러댕기기로 그렇게 아주 작정을 했더랬제이.”(72면)라는 부분에서 “혼”과 “몸뚱이”이의 양분은 현재 그의 양극적 행위의 구조와 직결되고 있어서 그럴 듯한 설명으로 들린다. 그러나 최지관이 독립군 생활을 청산한 전후에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의심했듯 그의 정념이란 고문의 고통과 자기 의지에서 기인하지만은 않는다. 자기 수도장(壽到場)을 정하고 뒤이어 신장병이 악화되어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최지관의 권고에 따라 이인태는 “이실직고”한 뒤 “웃는 얼굴로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다.

> “(중략) 이제 너의 이용 가치는 끝났다. 너 같은 자식은 죽일 필요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다. (중략) 조선인은 어느 누구도 이제 너를 믿지 않을 것이고, 너는 다시 마적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개 돼지 같이 살아!”(217면)

> “(중략) 네놈도 명색이 조선 독립군인가.(중략)” “네놈의 배신으로 야지골은 물론 샘물골·싸리밭골이 쑥대밭이 됐어. 한밤중에 왜놈 수비대가 들이닥쳐 마을을 불지르고 닥치는 대로 학살했어!” “여기만도 어른 아이 합쳐 열 여덟이나 난자당하고 불에 타 죽었단 말이다!” (중략) “어서 여기서 꺼져 버려. 개같이 기어나가 썩 없어져! 그래서 평생 똥이나 처먹는 개 돼지같이 살아!” 울음에 찬 아낙네의 앙칼진 고함이었다.(231-3면)

> “(중략) 귀까지 잘린 쓸개 빠진 더러운 놈, 니한테는 이 짓이 딱 제격이니까 개처럼 실컷 이 짓이나 하거라, 하며 내가 내 스스로를 비양거려 가며 더욱 기를 써서 그 짓에 온갖 정성을 쏟아붓지러. (73면)

위의 인용들에서 그가 이실직고한 내용과 사건 이후 삶의 방식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볼 수 있다. 첫 인용은 “만주의 독립군 끝 시

절", "고문을 받던 한 달여 동안 그의 취조를 맡았던 헌병조장" 아끼야마란 자가 이인태의 자백을 듣고 그가 쓸모없어지자 내보내며 뱉는 말이다. 그는 결국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독립군 부대원의 신상과 야지골을 중심으로 머물렀던 조선인 마을의 주요 은신처를 비몽사몽간에 모조리 자백하고" 말았던 것이다. 두 번째 인용은 "무차별 기습 공격으로 쑥대밭이" 된 야지골의 소식을 듣고 "일본 헌병대 공격이 자기 자백에 따른 보복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마을로 들어갔다 붙잡혀 매질당한 끝에 귀를 잘리고 내쫓기며 듣는 말이다. 이인태는 그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한다면 정말 한 마리 개돼지가 되어 살기로" 마음을 굳힌다. 그리고 이후 세 번째 인용처럼 "성적인 인간(작가의 말)"이 되는 것으로 그 다짐을 실천한다. 그의 정념어린 삶의 근저에는 이처럼 자신의 변절로 죽어간 동포들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죄의식이야말로 그의 현재를 옥죄는 정념 기억의 요체이다. 그런데 본고는 여기서 죄의식이 곧바로 '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과 직결되는 점이 문학적 상상을 넘어선 작위로 보이는 만큼 그 사이에 있는 감정적 변모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이인태는 최지관에게 처음 자신이 과거를 털어놓는 자리에서 당시 변절 사실은 숨기고 고문 당했던 일만 이야기하며 흥분한 끝에 오이디푸스가 항변하듯 자신의 변절 역시 '죄 없는 죄'[17]임을 주장한 바 있다. 작가의 의도가 그랬듯이 "혹독한 고문" 끝에 '비몽사몽간에' 뱉은 자백이었고 '어쩔 수 없는 변절'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기간은 2년여에 불과했으나 꿈꾸던 이상적 삶을 실천했던 "그로서는 생애에 가장 값진 시기였"고 당시 "독립 운동한다는 자부심 하나만은 대단"했다. 이를 상기한다면 그 같은 항변이란 이상적 자아[18]인 '독립군'이라는 지고한 지위를 다치지 않고자

17)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46면.

자신의 변절이 혹독한 고문 때문인 것으로 변명하고 위안하는, 내적인 고투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처럼 고투 중에 있는 인간이 즉각적으로 죄의식을 갖고 그에 대응되는 자세를 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군 헌병과 마을 아낙네가 던진 "개 돼지같이 살아!"라는 말을 '성적인 인간'이 되는 것으로 그대로 실천해야만 했던 이유란 그 말을 마치 주문(呪文)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책 속에 있던 이인태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주문에 걸리기라도 바랐던 것처럼 자포자기하며 비인간의 자리로 추락한다. 당시까지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기보다 영웅적 삶에의 욕망이 가로막힌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더 크게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인 마을의 참상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그 같은 주문에 복속(服屬)하는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19] 범박하게나마 마음의 부대낌을 정동이라는 개념으로 추수할 수 있다면, 이 복속의 순간을 숭고한 영웅적 삶을 욕망하던 주체의 자존감과 당시의 피폐한 좌절감이 맞부딪치는 때에 생성된 정동의 한 형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20] 이후 이인태는

---

18)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역, 「나르시시즘 서론」,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73-6면.

19) 책임감의 문제와 관련해, 이인태는 한편으로 자신의 과오가 식민지하의 조선인이기에 겪어야 했던 것으로 여기고 억울함을 토로한 적 있다. "하여간 나는 평생을 왜놈 때문에 조진 몸이야. 멀리 잡을 필요도 없이 오십 년 전에만 태어났다카면 그런 더러운 세월 안 보고 살았을 낀데……."(74면)

20) 스피노자는 정동을 근본적으로 타자들과 그리고 다른 상황들과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동이란 '정동하거나 정동되는 능력'(옮긴이 조성훈은 그 의미를 '정동적인 영향을 주다/겪다'로 이해한다)이다. 들뢰즈는 이를 이어받아 정동이 이행(transition)을 지배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행은 흔적을 남기고 그것은 기억을 구성한다.(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정동정치』, 갈무리, 2018, 29면, 83-4면) 권명아는 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상태이자 신체가 부대끼는 세계에 혹은 세계가 이러한 부대낌이라는 신체에 속해 있다는 지표라고 설명한다.(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주지하듯 수치스러운 성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죄의식을 증폭시켜 간다. '혼'과 '몸뚱이'로 양분하고 스스로를 '미친 짐승', '힘 좋은 수캐'로 지칭하며 결코 멸시받기를 꺼리지 않는 광기어린 정념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인태의 삶이 작가의 말처럼 깊게 반성하고 고뇌하는 숭고한 삶이라면 바로 이 주문에의 자발적 복속의 순간을 거쳐 책임을 떠안고 자기 삶을 다해 당시 그들의 주문과 혐오를 내면화하고 신체에 투사시켜 자기혐오[21]를 실천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식민지하 "고행의 땅"이 돼버린 조선과 그 안의 삶이란 '어떤 의미에서건 훼손되지 않을 수 없'는[22] 상황을 핑계 삼을 수 있었음에도 그는 책임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인태의 복속(服屬)과 비인간적 행위란 역설적이지만 '의식 있는 사람'다운 행위이자 그만의 저항이기도 하다.

### 2) 죽음을 통한 탈주와 자기 구원의 욕망

『바람과 강』의 중·후반부는 이인태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

16-7면) 이인태의 마음 변화는 곧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혐오는 종종 육체적 특징을 드러내는 자극에 대한 강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한다. 넌더리나는 냄새와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외양을 지닌 대상에 대해 나타나며 그 전형적인 표현이 구토다. 관념적으로는 역겨워 보이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자신이 저열해지거나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회피하고 싫어한다.(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66-72면 참조) 이인태의 자기혐오란 고문의 과정에서 동물적 육체성을 극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 죄의식을 성적인 행위로 상기하는 자기 육체에 대한 혐오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이인태의 성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자신의 유한성과 연약한 동물적 육체를 항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윤식은 이를 자굴감으로 지칭한 바 있다.(김윤식, 「전향소설의 한국적 양상」, 『김윤식 선집 2』, 솔, 1996, 232면)

22) 김현, 앞의 글, 276면. 김현은 '식민지 시대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건 훼손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이며 '이인태의 눈물섞인 한탄은 일제 식민 시대에 삶을 산 모든 의식 있는 사람들의 한탄'이라고 말한다.

채워지고 있다. 먼저 그의 "연장이 잘 서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 '성적 인간'이 되는 것으로 자기혐오를 실천하던 그에게 '남근은 생명의 상징'이자 '개돼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을 실천하게' 하는 필수적 도구라는 점에서 쓸모없어진 남성은 곧 모든 업보를 치렀다는 의미일 수 있다.[23] 그러나 그의 정념은 멈추지 않는다. 정념기억이란 외부적 검증뿐 아니라 자신의 수정도 미치지 못하는 정신신체적인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기에 "연장"의 기능이 멈췄는데도 "번뇌"의 정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혐오와 처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24] 이 때 그가 생각하는 정념과 복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란 죽음 외에 없다. 자기혐오가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을 대상화하고 내면화와 투사를 거친 삶의 한 방식으로 기능했다면 그에게 죽음이란 오롯이 그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며 스스로를 단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자 분리'이다.[25] "몸뚱이"로 치를 수 있는 죗값을 다한 만큼 이제 "몸뚱이"를 "말짱 빼내버리고" "혼"을 위로할 수 있는 육체적 죽음 이후의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에 귀의하려는 시도와 "묘터" 구하기로 나타난다.

---

23) 김치수, 「도덕적 인물과 부도덕한 개인-바람과 강, 우리들의 스승님」, 『외국문학』, 열음사, 1986, 350면.

24) 알라이다 아스만, 앞의 책, 343면.

25) 죽음에 대한 이인태의 자세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생관을 떠올리게 한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영혼과 육체가 본성을 달리하며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파한 바 있다. 나아가 육체적 삶을 혐오하고 죽음을 영혼이 겪는 더욱 광대한 삶의 과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조대호,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하다』, 산해, 2009, 103면) 이인태도 옛 고구려의 고분을 구경하며 보았던 장면을 설명하며 이러한 바람을 전한 바 있다. "(중략) 벽화에는 영혼 불멸을 믿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승천하는 그 희열찬 모습이며, 길상한 동물들에 싸여 신선과 같이 학을 타고 노는 영계의 인간들이 그려져 있제이. 참말로 저 세상은 분란도 시기도 고문도 없는, 가히 도화경이겠거니.", "거게서 새로 생명을 받고 태어나 아주 다른 사람으로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구만."(110면)

프로이트가 말한 '보통 사람이 자신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의 풀이를 보면 종교란 '한편으로 이 세상의 수수께끼를 부러울 만큼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 섭리가 그의 삶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승에서 그가 당하는 어떤 좌절도 내세에서 보상해 줄 거라고 장담하는 교리와 약속의 체계'이다.[26] 이인태가 죽음의 순간에 가까워지면서 종교에의 귀의를 고민하는 이유는 이 설명의 마지막 문장에 있다. 옆집 사는 민전도사와 대면하는 자리에서 그는 "내가 소일삼아 예배당에 나가 보는 거사 전생에 쥔 죄를 예수교에서는 우째 용서를 해 주나 그기 알고 싶어서 나댕겨 보는" 거라고 말한다. 곧 그가 저지른 죄와 고통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지, 동시에 내세의 삶이 다시 전생에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기독교나 불교 모두 그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가 종교적 믿음과 그 실천 방식을 연구해 얻은 것은 단지 망망한 두려움일 뿐이다. 성경이나 불가의 계율이 설파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 죄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내세 역시 그 때문에 편안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략) 그러므로 성경 말을 잘 뜯어보며는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 반드시 쥔 죄에 상응되는 정죄를 받기 마련이네.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려븐기라. (중략)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만일에 니 손이나 니 발이 니를 범죄케 하면 찍어 내버리라는 끔찍한 구절도 있더구만. 그라고,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이 멀쩡한 채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으니, 그 얼매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사실 나는 그 구절을 보고 놀라기도 했고, 내 같은 인생은 가망이 없겠다고 아예 포기를 했어."(127면)

26)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245면.

> "최 지관, 나는 스님이 말씀한 네 가지 근본 계율 중에 하나도 지킨 것이 없이 이 지경까지 살아왔어. 아니제이, 지키기는 고사하고 한 짓마다 보리를 닦는 일과는 거꾸로 살아왔으니 죽은 후 마로의 길에 떨어지기가 앞산에 불 보드키 환하네 그려. 첫째, 음행을 하지 말라 캤는데 내 그 점이 계율에 들어갈 줄이사 알았지만 첫째가는 계율인 줄은 몰랐제이. 음욕을 끊지 않고 수도한다는 것은 모래로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카이, 증말 백천 겁을 찐다 한들 그기 어데 밥이 되겠는가."(164면)

민전도사와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토론하며 "천당"에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위의 인용처럼 이인태는 자기 두려움의 근원을 되새기는 데 그치고 만다. 기독교는 역설적이게도 죄로부터의 해방과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면서,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강조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예리하게 한다.[27]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병적인 죄의식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다.[28] 민전도사도 이인태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주님"이 "구원"해 줄 것임을 강조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끔찍한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며 두려움이기에 기독교 안에서의 내세를 포기하기에 이른다.[29] 이인태가 서운암의 주지인 법은 스님으로부터 들은 불가의 설법 역시 마찬가지다. 그가 자인하듯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오늘날 자식 하나 옆에 두지 못했고, 이 지경으로 난치병까지 얻"은 그로서는 "성불도 글렀고 보살도 글렀"다고 자학할 수밖에 없다. 죄의식과 그 뉘우침의 발현태가 곧 '성적 인간'이 되는 것이었지만 종교적 교리 안에서는 그 같은 징벌

27) 앙투안 베르고트, 김성민 역, 『죄의식과 욕망』, 학지사, 2009, 92면.

28) 위의 책, 93면.

29) 이인태는 죽기 얼마 전 최지관에게 고백하는데,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나 고해성사처럼 신에게 하는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단지 진정한 벗에게 하는 "이실직고"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때의 최지관은 땅의 신을 대신한 고해사제가 될 것이다.

의 방법이 죄를 쌓은 것에 불과함을 강조할 뿐 그 의미를 헤아려주지 않는다. 프로이트가 강조하듯 죄의 감각을 가장 날카롭게 느끼는 이인태야말로 가장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그의 신앙을 수용하고 그를 해방시켜줄 만한 종교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30)

여타의 종교에 기댄 탈출을 꿈꿀 수 없게 되면서 이인태는 "길지에 묻히게 되면 전생에 지은 죄를 저승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최지관에게 좋은 "수도장"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 그에게 묘터는 또 다른 구원의 세계가 된다. 죽음 자체를 종교적 의미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 삼는 자에게 땅은 이승에 남겨질 육체를 눕힐만한 자리를 베풀어줄 유일한 종교적 현신과도 같다. 짐승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그만큼 어울리는 종교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길지를 찾는 것에도 "적덕(積德)"의 요건이 필요하다. 최지관이 "설심부(雪心賦)"를 빌려 이르는 바에 따르면 "덕을 쌓음이 좋은 묘터를 얻는 근본"이다. 풍수의 법술에서 이르는 것마저 "악인은 죽어서도 선인의 길에 못 선다는 예수의 말과 똑같"다는 사실에 이인태는 "참말로 새어나갈 구녕이 없구만……." 하고 절망 섞인 탄식을 내뱉는다. 그러나 마지막 "비방"이 덕을 쌓은 지관을 잘 선택하는 것임을 듣고 최지관의 "행실 바른 생활"에 따른 적덕에 기대 묘터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꾸준히 이인태의 지기지우(知己之友)로 얽혀 등장했던 최지관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데, 그는 이인태의 생전 적덕을 대신하는 대리자인 것이다.31) 첫 번째 묘터에 대해 이인태가 "저

30) 앙투안 베르고트, 앞의 책, 95면.

31) 이인태와 최지관이 '끈끈하게 얽혀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은 이미 서정기가 논의한 바 있다. 당초 작가는 자신이 '존경의 사표'로 삼았던 '점잖은 시골 독학자' '이인택씨'를 이인태의 모델로 삼았었으나 소설 구성 과정에서 변동되어 그 같은 특성은 이인태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나 그의 점잖은 풍모는 최지관의 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인태와 최지관의 얽힘은 그들이 모두 '구멍'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지관의 '구멍'이 땅의 진혈이라면 이인태의 '구멍'은 그동안 거쳤던 여성 편력의 우주적 연장이 될 묘터가 된다(서정

승에 누버서도 또 길 따라 떠댕기고 싶어"질 듯하다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묘터가 바람을 재울 수 있는 땅이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묘터는 "물을 얻고 바람을 막는" 수석봉 건너편으로 정해진다. 평생을 떠돌며 죄짓고 살았던 그이기에 저승에서만큼은 똑같은 운명 속에 놓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때 바람과 물(강) 또한 '떠돎'과 '붙박음'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인태와 최지관의 상보적 관계를 상징한다.[32] 더불어 그가 눕고자 하는 곳이 고향이 아니라 입암 마을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서정기가 지적하고 있듯이 입암(立岩)은 이인태의 "연장"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자 김현에 따르면 분지의 여성성과 입암의 남성성이 얽힌 심리적 장소이다.[33] 그가 입암 부근에 안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이 짐승 같은 인간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며 그 다된 삶을 품어줄 현신이자 땅이라는 종교를 풀어낸 교리서의 한 장(章/場)이기 때문이다.

죄지은 인간이 자신을 품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 그러한 인간을 품어주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이 같은 결론은 어쩌면 작가가 의도한 변절자의 최후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숨은 뜻일 수 있겠다. 그러나 죽음이란 보편의 인간이 가 닿는 목적지인 만큼 그의 죽음이란 특별한 게 아닐지 모른다. 그의 마지막 행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죽기 직전 행한 고해가 그의 온갖 정념을 흩트리고 마침내 편안한 죽음을 주는지 살피는 일만이 남아있다.

---

기, 앞의 글, 105-106면).

32) 김현, 「달관의 역사적 의미」, 김원일, 『바람과 강』, 앞의 책, 270면.

33) 서정기, 위의 글, 108면; 김현, 위의 글, 271면.

### 3) 공동체적 연민의 회복과 자기 정화

이인태는 서사 말미에서 “미천한 짐승”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병중에도 돼지우리에 들어가 누우면서까지 “몸부림”치고 이를 지켜보던 최지관은 “자기를 버리기”를 실행하며 끝까지 참회하고자 하는 이인태의 태도에서 전율마저 느낀다. 그러나 그 같은 행태의 의미란 위에서 언급한 맥락에서 해석될 뿐 서사에서 다른 결정적 의미를 띠지는 않는다.[34] 그보다도 이인태가 월포댁에게 “눈 감기 전에 한 가지 원이 있”다며 부탁해 동짓날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리판”에서 마지막 주요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만주 시절, 헌병대에서 풀려나고 야지골에서 그 사건이 있은 뒤 이인태는 실성한 상태로 거지처럼 떠돈다. 그러다 한 조선인의 회갑 잔치에서 벌어진 소리판에 끼어 앉아 성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장면을 들으며 “비 오드키 눈물을 좔좔 쏟으며 애마냥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한 적 있다. 이후 “사람 구별 않”는 소리꾼들의 “기특한” “씀씀이”에 끌려 그들과 동패가 되어 여러 곳을 흘러 다니다 몇 달 뒤 온전한 정신을 되찾지만 명창에게 사정이 생기면서 헤어진다. 그 뒤 그의 본격적인 방랑이 시작되고 짐승의 삶이 이어진다. 죽기 전 이인태가 소리판을 벌이고자 한 이유는 그때의 눈물이 상징하는 당시의 어떤 정념을 환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신을 포함해 “이 고행의 땅에 태어남”을 겪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 섞인 정념이다. 당시의 이인태 또한 자기 신세를 한탄해 눈물 흘렸다기보다 소리를 계기로 식민지하 간도땅에서 간난을 겪는 조선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심연에 공유된 감정을 확인하면서 눈물이 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에게만 한정된 감정 상태에

34) 김현은 “돼지우리에서의 삶은 이인태의 삶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한다.(김현, 위의 글, 277면)

서 벗어난 초연한 자의 자태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인태는 과연 최지관에게 “보살의 도를 닦”는 듯 보이며 내내 “입가에 음전한 미소를 잠시도 떼지 않”음으로써 오랜 번뇌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소리판이 벌어지자 실제 만주시절의 환시를 겪는데, 그 속에서 그가 만나는 것은 바로 그때의 “조선 사람”들이다.

특히 ‘춘향가’의 이별하는 대목에 접해 월포옥 마당에 모인 청중이 ‘느껴 울고’ 전투통에 아내를 잃은 가객의 ‘한서린 소리’가 극에 달하자 이인태는 환시로나마 ‘그 때 그 시절’의 ‘어깨 좁은 소리광대’와 ‘수염 허연 늙은 고수’와 재회한다. 뒤이어 ‘너는 개만도 못한 자식이다’라는 일본군 헌병의 말을 떠올리고 혼절하면서 정념 기억의 온전한 현시를 경험한다. 여기서 판소리의 심정적 기능을 염두에 둔 연구자는 판소리가 예술성이 농후한 음악으로 청자의 감정이입을 추구하며 슬픔이 치닫는 절정에 이르면 격양된 감정이 분출되는 효과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인간의 의식을 변환하는 고도의 예술효과를 지녔다고 주장한다.[35] 서사에서 이별의 슬픔을 담은 “가객의 구성진 소리”가 “눈발을 가르고 만리수(萬里愁) 강물이 닿는 데 없이 굽이져 흐르듯, 맺었다 풀고 풀었다 다시 맺어 가며 느껴느껴 이어졌다”는 부분이나 고수의 “북 장단 또한 소리를 따라서 받치고 달고, 맺고 풀어, 높고 낮게, 여리고 빠르게 변화를” 주어 소리판을 이끄는 부분에 이르면 분명 그 소리가 밀고 당기며 내밀한 인간의 감정을 들쑤시는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본고가 파악하기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소리의 의미이기보다 그것이 이인태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 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특정한 정념을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이인태는 과거 “실성기”를 가진 비인간이었던 당시 ‘춘향가’의 이별하는 대목을 들으며 “구경꾼이 모두 눈물을 찍었지마는

35) 이미나, 앞의 글, 312면.

나는 비 오드키 눈물을 좔좔 쏟으며 애마냥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다고 부언한 바 있다. 실성 상태로 떠돌다 소리판에서 우는 행위를 기점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으로 유추되는 만큼 그 "울음"의 의미에 방점을 두어 '실성기'를 가진 비인간이 눈물을 쏟는 것으로 구경꾼과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감정과 신분을 회복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죽기 직전의 이인태가 자신이 벌인 소리판에서 그 같은 환시를 경험하는 것은 그동안 실천해왔던 자기 변절 행위에 대한 항변과 방어적 심리 기제들을 묻어두고 대신 청중의 울음과 같은 본래의 인간적 감정을 회복하고 분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좋으리라 본다.

이는 최지관에게 자백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풀어볼 수 있다. 용정 야지골에 다시 찾아갔다가 귀를 잘리고 쫓겨나면서 일본군의 습격으로 아이를 잃은 아낙네로부터 듣는 말이다.

> "어서 여기서 꺼져 버려. 개같이 기어나가 썩 없어져! 그래서 평생 똥이나 처먹는 개 돼지같이 살아!" 울음에 찬 아낙네의 앙칼진 고함이었다.(233면)

환기되는 기억 속에서 그가 되찾는 것은 "평생 똥이나 처먹는 개 돼지같이 살"라던 "아낙네의 앙칼진 고함"이지만 그가 무의식중에 느끼는 정념은 마지막 문장에서 '아낙네'를 수식하는 "울음에 찬"이라는 어구에서 발원한다. 비록 서술자의 지문이기는 하나 인간적 감정을 회복하는 찰나는 바로 그 앙칼진 고함이 전달하는 분노 뒤에 숨은 "울음에 찬" 감정의 상태, 곧 이유 없이 가족과 이웃을 잃은 조선인을 연상하는 순간인 것이다. 당시 야지골에서 그들로부터 "살을 찢는 매질"을 당하며 그가 고심한 것은 "살아날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자기보존의 본능이었고 "땡볕 아래 흙고물을 바르고 꿈틀거리는 지

렁이처럼 기고 또 기었"던 자신에 대한 동정이었다. 당초 야지골로 다시 찾아간 이유도 "일본 헌병대의 공격이 자기 자백에 따른 보복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을 만큼 그는 조선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무감하다시피 했다. 이후에도 복속의 과정을 거쳐 자기 혐오의 징벌에만 몰입해 있느라 자신을 비롯한 타인(조선인)과의 감정적 소통이 전무했었는데 소리판의 울음을 계기로 비로소 당시 조선인이기에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적절한 감정적 반응을 찾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그 감정이란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자 그들 입장에서의 절망을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연민을 가리킨다.[36] 이는 직접적인 슬픔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단지 그들에 대한 기계적 동정이나 감정이입에 그쳤던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닥친 것으로 믿는 불행……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의미를 갖는 연민이란 고통이 심각함을 알고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상대의 고통의 정도를 흡사하게 느끼는 마음을 필요조건으로 갖는 정념이다. 특히 자신의 잘잘못을 넘어서 어떤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또한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때 이인태는 그들의 고통을 믿기보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자신의 행보가 좌절된 데 따른 자괴감과 절망이 앞서있는 상태였다. 이후에도 자신의 징벌에 몰두한 나머지 죄의식의 근원에 대해서는 심정적

36)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2 연민』, 새물결, 2015, 561-76면 참조. 연민(compassion)은 동정(sympathy)이나 감정이입과 질적으로 다르다. 연민은 동정보다 강렬하며 고통당하는 사람 쪽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진 사람 쪽 모두에서 동정보다 더 큰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다. 그래서 연민이 동정보다 관심 및 이후의 행위와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감정이입은 숙련된 배우의 정신적 준비와 비슷하다. 즉 고통 받는 사람의 상황을 참여적으로 행위화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항상 나는 고통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누스바움의 책, 554면과 597면 참조).

으로 완전한 자기 합치를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인태가 연민의 정념을 회복했다는 것은 자신의 참회가 허위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며 복속의 행위가 진정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님을 확인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그는 심정적 정향을 회복하게 된다.[37] 서사 전반에 드러나고 있지만 그의 심정적 정향은 입암장터의 사람들과 교환되지 않는다.[38] 전쟁 뒤끝의 현재가 아니라 당시 식민지인의 고통을 내재한 조선인 집단의 정향과 동일한 것이며 그것을 위안했던 이가 바로 간도땅을 떠돌던 소리패였고 그들 소리의 "애원한 정념의 슬픔"이었던 것이다. "사실 시신을 눕힐라 카면 저 간도땅 야지골이란 데가 딱 좋겠구마는."이라는 발언이 의미하듯 그는 정향됨으로써 심정적으로나마 야지골로 귀향한다. 고통과 번뇌의 기원이었던 그곳으로 귀향한다는 것은 나아가 그러한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를 정화하기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최지관의 말처럼 심중에 감춰뒀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것을 "자존심으 마지막 발판"으로 삼았던 이인태는 이때에야 비로소 고해하고 "죄 많은 놈 지은 죄를 여러 동포들 두루 용서해 주소."라면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죄의식으로부터 비롯된 자기혐오의 정념을 치유하는 계기는 고해의 순간이기보다 심연에 갇힌 인간적 연민의 회복의 순간에 있다. 서사 말미에 이르면 이인태 스스로도 자신의 허위적 참회의 과정을 "억하심정으로 한평생을 개같이 살아온" 것으로 판명하기에

37) 정향이란 쉽게 말해 한 집단의 감정적(특히 좋다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향한) 지향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 외, 최성희 외 역, 『정동 이론』, 갈무리, 2015, 56-76면 참조.

38) 서사에서 입암장터 사람들은 이인태를 단지 떠돌던 "허렁뱅이"로 취급하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만 여긴다. 그리고 그가 겪은 바깥 경험을 동경의 마음으로 듣는데 그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쉽게 모였다 흩어지는 장터라는 장소가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 인간관계이기도 하다.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편안한 웃음을 짓고 죽음을 맞는다. 연민이란 이미 중요한 유사-윤리적 성취[39]를 포함하고 있는 정념이기에 변절자의 문학적 말로는 이렇듯 지고한 윤리적 인간의 형상일 수 있는 것이다.

## 3. 결론

작가의 전작들에서 기억은 그 실체와 의미가 완결된 어떤 과거의 사건들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기억작업에 대해 열려있는 살아있는 실체로써 작업되어 왔다.[40] 이에 반해 『바람과 강』의 이인태라는 인물이 가진 기억은 결코 현재와 미래의 여지를 갖지 않는 완결되고 닫힌 기억이다. 서사는 이 같은 기억의 근원과 그 의미를 풀어내기 위한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것을 정념 기억으로 칭하고 정념과 결부된 주체의 미묘하면서도 역동적인 의식 변화를 세밀하게 논의하고자 했다.

먼저, 현재의 이인태가 드러내는 기이한 양극적 언행이 정념 기억의 발현태이며 이는 과거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당시 저지른 과오를 꾸짖던 조선 동포들의 발언을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자발적으로 복속하며 얻게 된 것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이 때 상기되는 주요 정념을 죄의식과 자기혐오로 보았다. 뒤이어 정념의 고통 속에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죄의식을 포함한 이승의 번뇌로부터 자기 영혼을 구제하고자 종교에의 귀의를 시도하는 과정을 논의했다. 그가 기독교와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탐색하지만 죄의식과

39) 마사 누스바움, 위의 책, 613면.

40) 최성만, 「벤야민 횡단하기-벤야민의 개념들」,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06, 382면.

그 뉘우침의 발현태가 곧 '성적 인간'이 되는 것이었던 만큼 여타 종교적 교리 안에서는 그 같은 징벌의 방법이 죄를 축적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의미를 이해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인태는 결국 최지관의 도움을 받아 길지를 찾게 되는데, 이에 대해 짐승 같은 삶을 살아온 자에게 어울리는 땅이라는 종교를 찾은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간도 시절을 상기하려는 이인태의 소원으로 벌어진 소리판을 계기로 그가 인간적 연민과 함께 당시의 조선 동포들과 같은 정향을 회복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로써 "한평생을 개 같이" 살아온 변절자의 생애와 그 말로가 그토록 지고한 윤리적 형상일 수 있는 이유란 곧 작가가 의도했듯 지독한 고뇌와 참회 속에 연명해왔던 데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김원일의 『바람과 강』은 전술했듯이 우리 소설사에서 자기 징벌의 문제를 가장 깊게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글은 그 징벌의 형태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하는지 그 정동적 움직임에 초점을 두어 기존 연구의 미진함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는 작가의 소설에 활용되는 기억 방식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인태의 주변 인물이면서 독립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최지관과 계연, 학수, 명구 등의 인물들이 관계 맺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감정의 변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이는 차후에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 참고문헌 ■


## 1. 기본 자료

김원일, 『바람과 강』, 문학과지성사, 1985.

## 2. 참고 자료

권명아,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2012.

김치수, 「도덕적 인물과 부도덕한 개인-『바람과 강』, 『우리들의 스승님』」, 『외국문학』8, 열음사, 1986.

김 현, 「달관의 역사적 의미」, 김원일, 『바람과 江』, 문학과지성사, 1985.

김윤식, 「전향소설의 한국적 양상」, 『김윤식 선집2』, 솔, 1996.

서정기, 「역사의 신화적 열림」, 『작가세계』9, 작가세계사, 1991.

양선이, 「흄에 있어서 정념과 자아」, 『철학연구』55, 철학연구회, 2001,

이대영, 「김원일 장편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43, 한국언어문학회, 1999.

이미나, 「『바람과 강』에 나타난 '죄'의 감정과 죽음의식 연구」, 『구보학보』15, 구보학회, 2017.

이동하, 「풍수사상과 윤리의 문제」, 『한국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양상』, 푸른사상사, 2005.

이종찬, 「정동, 마음의 움직임」, 『문화과학』86, 문화과학사, 2016.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전성태, 「역사의 실존적 무게」, 『바람과 강』, 강, 2009.

정수영,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 『커뮤니케이션 이론』11, 한국언론학회, 2015.

정현기, 「김원일의 『바람과 강』」, 『소설로 열리는 사람들』, 국학자료원, 1994.

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_____, 「한국 역사소설과 성장의 행로」, 『현대소설연구』1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_____, 「한국 소설 속의 자기처벌자」, 『구보학보』7, 구보학회, 2011.

조대호, 「죽음은 육체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정동호 외, 『철학, 죽음을 말

하다』, 산해, 2009.

최성만,「벤야민 횡단하기-벤야민의 개념들」,『문화과학』, 문화과학사, 2006.

아스만 알라이다, 변학수·채연숙 역,『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아메드 사라,「행복한 대상」,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최성희 외 역,『정동 이론』, 갈무리, 2015.

베르그손 앙리, 박종원 역,『물질과 기억』, 아카넷, 2014.

에반스 딜런, 임건태 역,『감정』, 이소출판사, 2002.

프로이트 지그문트, 윤희기·박찬부 역,『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2000.

_____, 김석희 역,『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랑거 로렌스, *Holocaust Testimonies-The ruins of Memory*, Yale University Press, 1991.

마수미 브라이언, 조성훈 역,『정동정치』, 갈무리, 2018.

누스바움 마사, 조계원 역,『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_____, 조형준 역,『감정의 격동2-연민』, 새물결, 2015.

오카 마리, 김병구 역,『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베르고트 앙투안, 김성민 역,『죄의식과 욕망』, 학지사, 2009.

**<Abstract>**

# A study on passion memory and subject consciousness in “Wind and River” written by Kim, Won-Il

Ma, Hye-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assion memory and the change of subject consciousness revealed in “Wind and River” written by Kim, Won-Il. In an individual’s past, memory and passion is a complex, which is indivisible, especially the passion described from autobiographical memories can be criteria to verify credibility of memories. In this paper, the memory accompanied with passion is called passion memory. Why the main character, Lee, In-Tae exhibited bizarre behavior was that he was overpowered by passion memory. The source of his passion was created by the death of many Koreans caused by his act of betrayal when he was an army for national independence. It included fear, pain, guilt, self-loathing, desire of self-salvation. His passion of self-loathing was generated by completely obeying the words from Chosun people like spells. And in order to save himself from being subordinated, he studied religious doctrine and looked for resting places. Finally, it showed the process of self-purification by recovering the human compassion in the unconsciousness and making self-confession with Pansori. We hereby understand what the author intended to show in “Wind and River”: the

life of a betrayer who did a self-examination and passed from thought to action and the meaning of the literary outcome.

Key words: Kim, Won-Il, passion, passion memory, betrayer, guilt, self-loathing, self-salvation, compassion

투 고 일 : 2018년 10월 30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